ICT 0326

빅데이타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 개인들이 동참을 해야 개인과 기업에 도움이 된다(?)

빅데이터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최근에 들어서야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이용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

컴퓨터가 싸지고 메모리 높아지고 네트워크 빨라지고 ….. -> 이론, 연구가 되어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이것들이 결합해서 구현이 되기 시작함.

코엑스등의 세미나, 워크샵에서 IT관련 발표나 전시를 하면 사물인터넷, 빅데이타관련 기술이나 기업들이 굉장히 인기다.

기술이 성숙해서 값이 싸지고, 누구나 이용하게 되면 그 기술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당연한 것이 되어버림)

<미세먼지> - 중간에 경보날라옴

차량2부제한다고 미세먼지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 하나도 변화없다.(과학적 검증이 필요한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빅데이터가 없다.

도로를 물청소하는게 필요하다. – 프랑스에서는 몇십년 전부터 시행. (미세먼지수치가 대폭감소했다.)

북경에 인공강우 – 효과가 있는가? – 인공강우처럼 몸에 나쁜게 없다.(건강, 안전에 나쁘다)

인공 바람을 만들자 – 거대한 팬, 아니면 온도차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바람이 나오게 하자.

빅데이터 –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화두.

데이타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은 사물인터넷의 발달 – 데이터 수의 기하급수적 증가.

디지털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15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The Five V’s of Big Data (시험문제)

Volume – amount of data

Variety – different types of data

Velocity – speed of data processing

Veracity – uncertainty of data

Value – actionable insight.

Volume, Variety, Velocity, Veracity, Value

주요 성공분야

Location based service

Retail

Facebook, google등 우리의 신원정보들을 조합해서 타켓팅해서 광고도 하고,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다(페이스북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 소비자들은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 기업에서 정보를 가져간다. )